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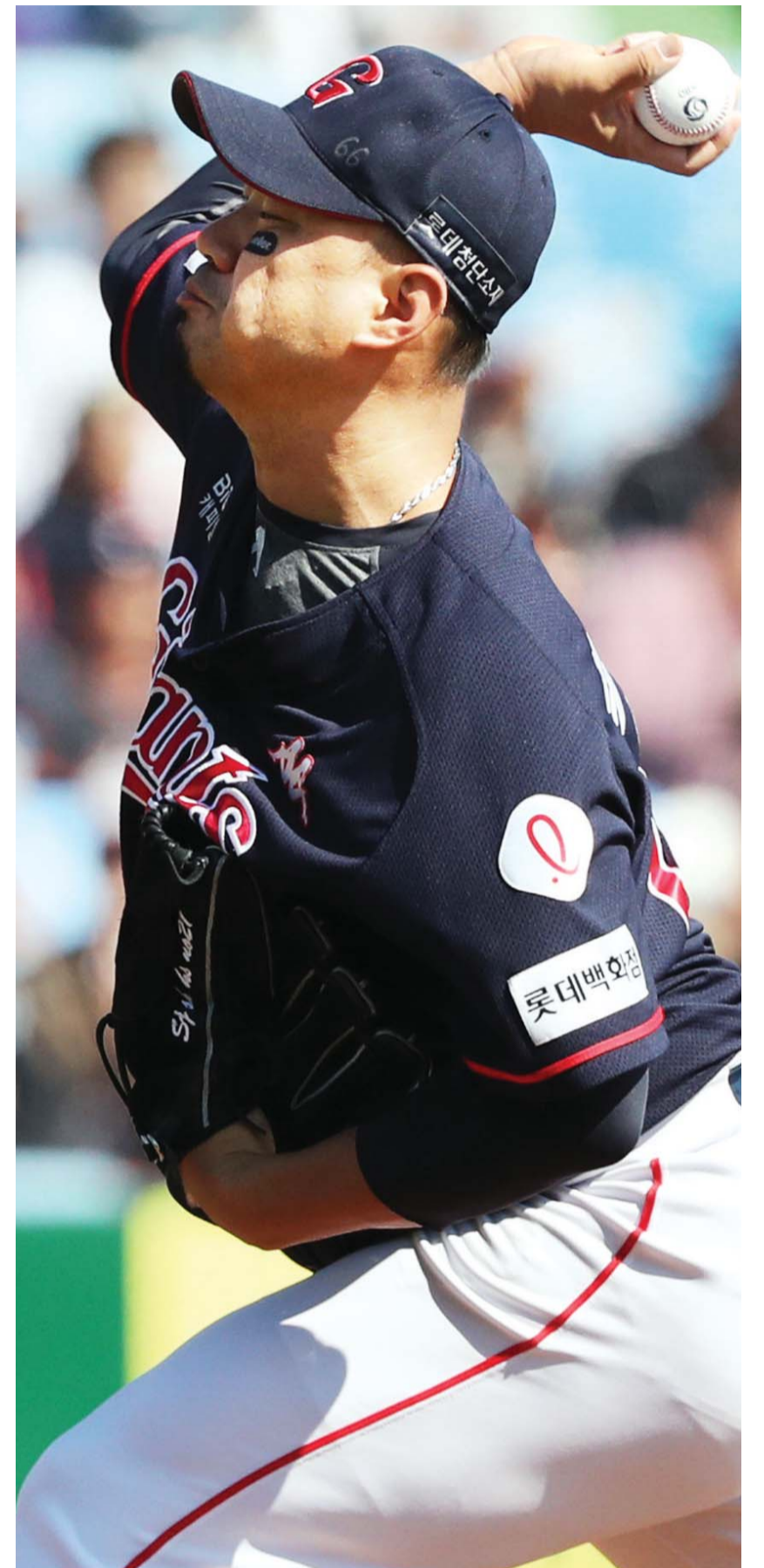
# “너를 넘어야 가을야구” ... 운명의 ‘영호남 더비’



KIA 임기영

KIA 한 경기차 살얼음 5위...롯데와 잔여 4경기 중 오늘 첫 게임 임기영 선발 출격 ... 올 롯데전 평균자책점 3.86에 2승 거둬 초반 기선 잡아야 게임 안정적 운영...안치홍 등 중심타선 기대

운명을 건 ‘영호남 더비’가 펼쳐진다. 2018시즌의 종착역이 눈앞에 보인다.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구긴 KIA 타이거즈가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무대는 이제 5번만 남았다. 9일 사직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만나는 KIA는 10일 안방으로 돌아와 한화 이글스와 상대한다. 그리고 11일부터 13일까지 롯데와 2018시즌 마지막 3연전을 치른다. 지난해 우승팀 KIA는 ‘우승 멤버’ 그대로 올 시즌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5위만 내다보면서 시즌을 달려왔다. 지난해가 시작되기 전에는 모처럼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발휘하는 것 같았다. 살아난 타선의 힘을 앞세워 9월을 15승 8패로 마무리하면서 6위와 2.5경기 차를 만들었다. 당시 7위였던 롯데도 3.5경기 차 밖에 있었다. 하지만 험난했던 1주일을 보낸 KIA는 6위가 된 롯데에 1경기 차로 쫓기고 있다. 말 그대로 강행군이었다. 2일 NC 다이노스와 4시간 31분에 걸친 연장 혈투를 치른 KIA는 공장 대구로 이동해 3일 오후 2시 경기를 치렀다. 이날 KIA는 ‘에이스’ 양현종의 갑작스러운 부상 속 삼성 라이온즈에 5-20의 대패를 당했다. 충격적인 2패를 안고 문학으로 올라간 KIA는 만루에서 나온 유재신의 프로 첫 홈런으로 SK 와이번스의 ‘괴물’ 김광현을 잡아내며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태풍 콩레이의 여파로 5일 경기가 취소되면서 6일 더블헤더를 치러야 했다. 하루에 두 경기를 소화한 KIA는 잠실로 이동해서 7일 오후 2시에 다시 그라운드에 올라야 했다. 결과는 연장 10회 끝내기 패. KIA는 한 주의 시작과 끝을 연장 패배로 장식하면서 2승 4패로 뒷걸음질을 쳤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롯데와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KIA는 최근 가장 뜨거운 팀과 5위 자리를 놓고 마지막까지 숨 막히는 싸움을 벌여야 한다. 9일 경기는 결승전 같은 무대다. 이날 KIA가 승리를 거둔다면 두 경기 차로 롯데를 밀어내고 11일 안방에서 진행될 3연전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롯데는 10일 kt 위즈와 더블헤더까지 치른 뒤 광주로 와야 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KIA의 5강 싸움에 빨간불이 켜진다. KIA가 0.4857의 승률로 0.4852의 롯데에 근소하게 앞서 5위는 유지하지만 승차는 없어진다. 또 롯데는 기세를 몰아 올 시즌 11승 1무 2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 kt전 더블헤더 싸움까지 노력할 수 있게 된다. 임기영이 좋은 기억을 살려 위기의 팀을 구해야 한다. 임기영은 올 시즌 롯데전에 3차례 나와 3.86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을 올렸다. 6월 9일 팻덴에 이어 3이닝을 던지며 구원승을 올렸던 임기영은 7월 31일에는 선발로 출격해 6.1이닝 1실점의 호투로 다시 한번 승리투수가 됐다. 9월 14일 세 번째 대결에서는 손아섭의 솔로포에 5번째 점수를 허용하는 등 4.2이닝에서 등판이 끝났지만, 팀은 9-5 승리를 거뒀다. 타석에서는 안치홍의 방망이에 눈길이 간다. 올 시즌 꾸준히 강했던 안치홍은 지난주 21타수 2안타에 그쳤다. NC전에서 팔꿈치와 어깨에 공을 맞았던 안치홍은 6일 SK전에서도 공을 피하지 못하는 등 잇단 사구로 컨디션이 푹 떨어졌다. 4번 타자 안치홍의 침묵으로 ‘다이너마이트’ 타선에도 제동이 걸렸다. KIA가 마지막 고비를 넘고 와일드카드 티켓을 따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롯데 송승준

## 임성재 PGA 성공 데뷔

개막전 세이프웨이 오픈 공동 4위 선전

임성재(20)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데뷔전에서 1타차로 연장전에 들어갈 기회를 놓쳤지만 공동 4위로 선전했다. 신인 임성재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파벨리의 실버라도 리조트 앤드 스파 노스(파72·7203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2018-2019시즌 개막전 세이프웨이 오픈(총상금 640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14언더파 274타를 친 뒤 연장전에서 우승한 케빈 트웨이(미국)에게 불과 1타 뒤진 공동 4위로 데뷔전을 장식했다. 올해 2부 투어인 웨딩컴 투어 상금왕 자격으로 2018-2019시즌 PGA 투어에 진출한 임성재는 첫 대회부터 이번 시즌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서 위용을 뽐냈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4타 뒤진 단독 3위였던 임성재는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맹추격에 나섰다. 초반 부진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임성재는 1, 2번 홀에서 연달아 보기를 적어내며 한때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위기까지 맞기도 했다. 그러나 14번 홀(파4)에서 약 4m 버디 퍼트로 반전의 계기를 만든 임성재는 16번 홀(파5)에서는 이글 기회까지 잡았다. /연합뉴스

두 번째 샷을 할까지 약 4.5m 거리로 보낸 임성재는 하지만 이글 퍼트가 아쉽게 빛나며 버디에 만족해야 했다. 이이글 퍼트가 들어갔더라면 연장에 합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아쉬움이 남았다. 임성재는 “브랜트 스넬데커와 한 조였는데 어려서부터 TV를 통해 본 선수여서 같이 경기를 해보고 싶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PGA 투어 첫 대회에 나와 챔피언 조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오면 덜 긴장되고 좀 편하게 경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유명한 선수들과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긴장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2018-2019시즌 선전을 다짐했다. 한편 트웨이는 연장에서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올해 30살인 트웨이는 2014년부터 PGA 투어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했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2부 투어로 밀려났던 선수다. 지난해 다시 PGA 투어에 복귀한 트웨이는 91번째 PGA 투어 대회 출전에 첫 우승을 일궈냈다. 우승 상금은 115만2000달러(약 13억원)다.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8)는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10위에 올랐다. 김민휘(26)는 6언더파 282타로 공동 33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싱겁게 끝난 오승환의 가을

콜로라도, 3연패로 DS 탈락...올 73경기 등판 내년 자동 계약 연장

오승환(36·콜로라도 로키스)은 2018년 많은 것을 ‘처음’ 경험했다. 비시즌에는 입단 직전에 계약이 취소됐고, 생애 처음으로 트레이드로 팀을 옮겼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한-미-일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무대를 누비는 영예를 누렸다. 콜로라도 로키스가 8일 열린 2018 메이저리그 내셔널 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서 0-6으로 패하면서 오승환의 2018시즌은 종료됐다. 팀 성적에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오승환은 2018년을 잘 마무리했다. 오승환은 올해 정규시즌에 73경기에 나서 6승 3패 3세이브 21홀드 평균자책점 2.63을 올렸다.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디비전시리즈 등 포스트시즌 성적은 3경기 3이닝 2피안타 2실점 평균자책점 6.00이다. 무엇보다 ‘다음’을 기약할 수 있어 오승환의 마음은 편하다. 미국 현지 언론은 “오승환이 베스팅 옵션(구단이 제시한 기록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계약을 실행하는 것)을 채워 내년 연봉 250만 달러를 받는다”고 전했다. 오승환은 2월 27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1+1년 최대 750만 달러에 계약하며 “70경기 이상 등판하면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콜로라도는 7월 26일 트레이드로 오승환을 영입하며 ‘계약 내용’도 이어받았다. 지난 2월, 오승환은 프로 생활을 시작한 뒤 가장 큰 마음 고생을 했다.

현지 언론은 “텍사스 레인저스가 1+1년 최대 925만 달러에 오승환을 영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지만 텍사스는 발표를 미뤘고, 계약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오승환의 팔꿈치 염증이 계약 무산의 이유”라는 보도가 나왔다. 오승환은 이후 몸 상태에 대한 검증을 다시 했고, 토론토와 계약했다. 고비를 넘은 뒤에는 탄탄대로였다. 오승환은 토론토에서 48경기에서 나서 4승 3패 2세이브 13홀드 평균자책점 2.68로 활약했다. 트레이드 마감 시간 직전에 콜로라도로 이적한 오승환은 25경기에서 2승 1세이브 8홀드 평균자책점 2.53으로 호투하며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공헌했다. 잊을 수 없는 기억도 남겼다. 오승환은 3일 시카고 컵스와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1-1로 맞선 연장 10회말 등판, 1.2이닝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한국인 최초 한-미-일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출전 기록을 완성한 순간이었다. /연합뉴스

## 다저스 첫 패배...애틀란타 기사회생

MLB 디비전시리즈 2-1...오늘 4차전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 3승제)에서 2연승 후 첫 패배를 당했다. 다저스는 8일 애틀랜타 선트러스트파크에서 벌어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시리즈 3차전에서 5-6으로 패했다. 다저스는 0-5로 뒤지던 경기를 추격해 5-5 동점을 만드는 저력을 발휘했으나 끝내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다저스는 앞서 안방에서 치른 1~2차전에서 류현진과

클레이턴 커쇼의 눈부신 역투를 앞세워 애틀랜타를 각각 6-0, 3-0으로 꺾고 2연승을 달렸다. 류현진은 1차전에서 7이닝 무실점, 커쇼는 2차전에서 8이닝 무실점으로 뒤를 이었다. 다저스는 3차전에서 광속구 투수 워커 볼러를 앞세워 시리즈 조기 종결을 노렸으나 투수전으로 전개됐던 1~2차전과 달리 3차전은 타격전 양상으로 변했다. 2회말을 선두타자 볼넷으로 시작한 볼러는 2사 만루에서 애틀랜타 선발 손 뉴컴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했다. 계속된 만루에서 볼러는 아쿠냐에게 3볼-1스트라이크

에서 5구째 98.1마일(약 158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던졌다가 만루홈런을 허용했다. 1997년생인 아쿠냐는 20세 293일로 포스트시즌에서 만루홈런을 친 최연소 선수가 됐다. 종전 기록은 1953년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만루홈런을 친 미키 맨틀의 21세 349일이었다. 다저스는 쉽게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3회초 2사 1-2 루에서 저스틴 터너가 바뀐 투수 케빈 가우스먼을 상대로 좌전 적시타를 터트렸다. 좌익수가 타구를 뒤로 흘린 틈을 타 1루 주자까지 홈을 밟았다. 5회초에는 테일러의 좌월 투런포, 맥스 먼시의 중월 솔로포로 다저스는 5-5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6회말 투입된 알렉스 우드가 첫 타자인 프리먼에게 우중월 솔로홈런을 얻어맞고 결승점을 허용했다. /연합뉴스